

2013년 5월 고용 동향과 시사점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

김복순(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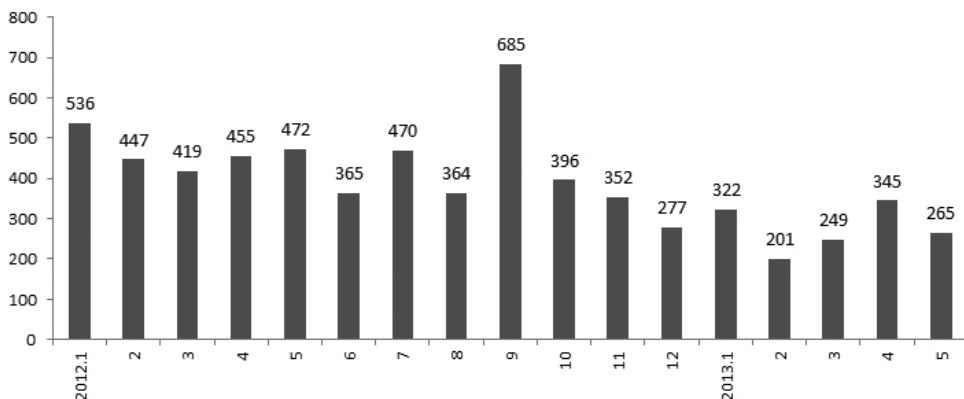
1 2013년 5월 고용 동향

◎ 취업자 수 : 전년동월대비 26만 5천 명 증가

– 이는 2012년 5월의 472천 명이나 2011년 5월의 355천 명 증가보다 적은 것

[그림 1]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10	2011	2012	2011. 5	2012. 5	2013. 5	
15 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40,590 (1.2)	41,052 (1.1)	41,582 (1.3)	41,003 (1.2)	41,519 (1.3)	42,047 (1.3)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4,748 (1.5)	25,099 (1.4)	25,501 (1.6)	25,480 (1.5)	25,939 (1.8)	26,195 (1.0)	
	취업자 (증가율) (증가수)	23,829 (1.4) (323)	24,244 (1.7) (416)	24,681 (1.8) (437)	24,661 (1.5) 355	25,133 (1.9) 472	25,398 (1.1) 265	
	참가율 (남성) (여성)	61.0 (73.0) (49.4)	61.1 (73.1) (49.7)	61.3 (73.3) (49.9)	62.1 (73.8) (51.0)	62.5 (74.1) (51.3)	62.3 (73.9) (51.2)	
	고용률 (남성) (여성)	58.7 (70.1) (47.8)	59.1 (70.5) (48.1)	59.4 (70.8) 0.5	60.1 (71.2) (49.5)	60.5 (71.7) (49.8)	60.4 (71.6) (49.7)	
	실업자	920	855	820	819	807	797	
	실업률 (남성) (여성)	3.7 (4.0) (3.3)	3.4 (3.6) (3.1)	3.2 (3.4) (3.0)	3.2 (3.4) (2.9)	3.1 (3.2) (2.9)	3.0 (3.2) 0.0	
	비경황 (증가율)	15,841 (0.9)	15,953 (0.7)	16,081 (0.8)	15,523 0.7	15,579 (0.4)	15,853 (1.8)	
	15 ~ 64 세	참가율 (남성) (여성)	65.9 (77.1) (54.5)	66.2 (77.4) (54.9)	66.4 (77.6) (55.2)	66.9 (77.8) (55.9)	67.3 (78.3) (56.3)	67.1 (78.0) (56.2)
		고용률 (남성) (여성)	63.3 (74.0) (52.7)	63.8 (74.5) (53.1)	64.2 (74.9)	64.7 (75.1) (54.2)	65.1 (75.6) (54.5)	65.0 (75.4) (5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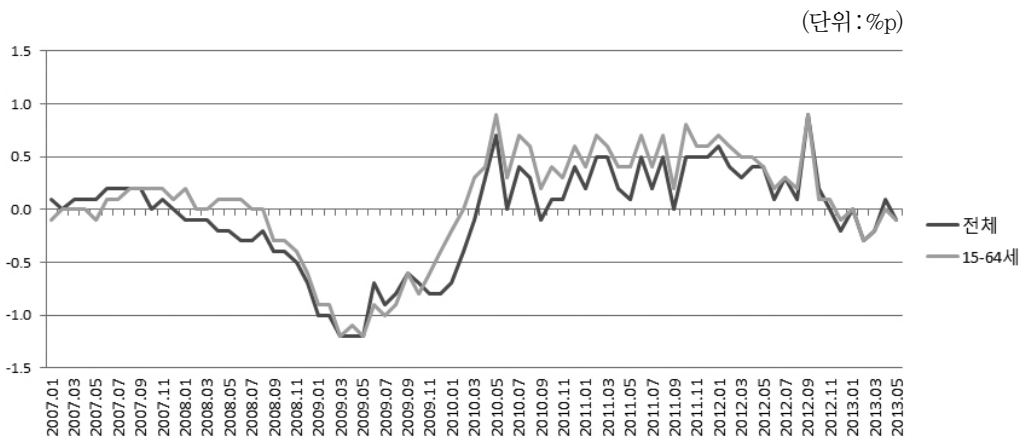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고용률 :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

※ 참가율도 감소(-0.2%p)

- ◎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
 - 실업률 0.1%p 감소 및 실업자 수 9천 명 감소
- ◎ 비경제활동인구
 - 전년동월대비 27만 3천 명 증가(증가율 1.8%)
- ◎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로 볼 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2012년 1월 이래 둔화 추세
 -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각각 0.2%p, 0.0%p, 0.3%p, 0.2%p씩 감소하였고, 2013년 4월에는 0.1%p 증가하였으나 2013년 5월 0.1%p 감소
 - 15~64세 고용률도 동일기간 동안 전년동월대비 0.1%p, 0.0%p, 0.3%p, 0.2%p씩 동반 감소하다가 2013년 4월에는 전년동월과 동일하였으나, 2013년 5월 0.1%p 감소
 - ※ 2012년 9월 고용률의 예외적인 변화는 2011년 9월에 대한 기저효과에 의한 것임

[그림 2]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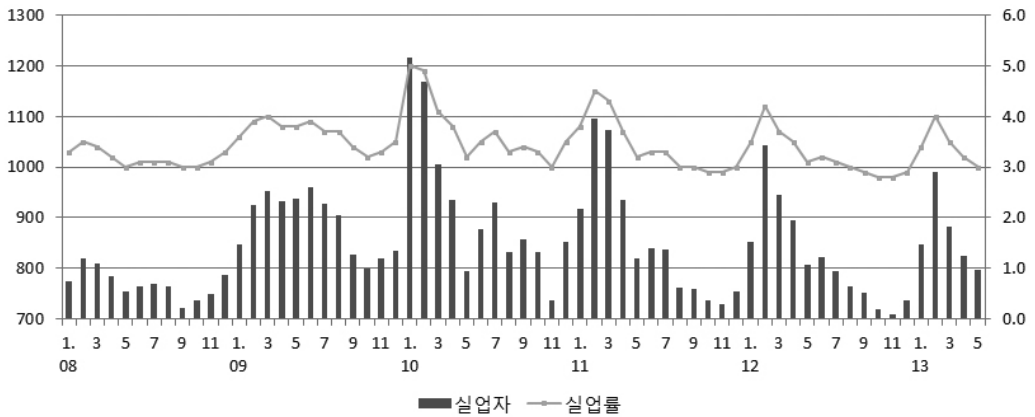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감소했지만,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적어도 2012년 하반기 부터 증가(그림 3, 4)
- ◎ 이와 같은 취업자 변동은 민간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그림 5)

[그림 3]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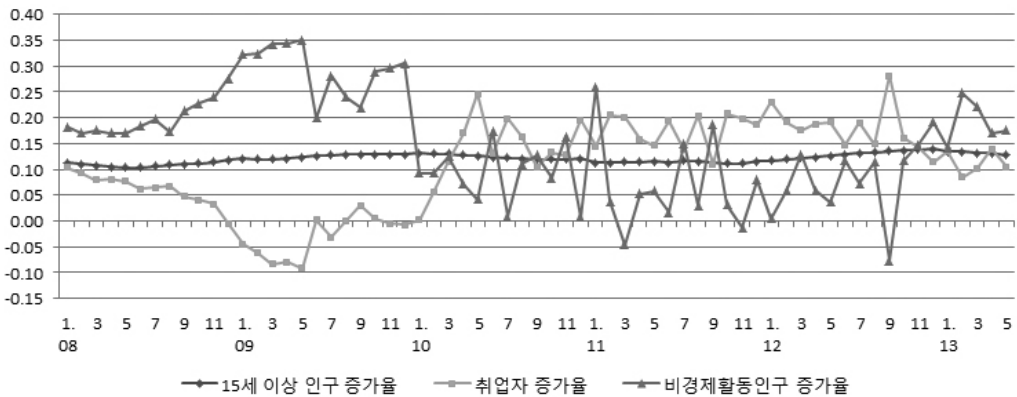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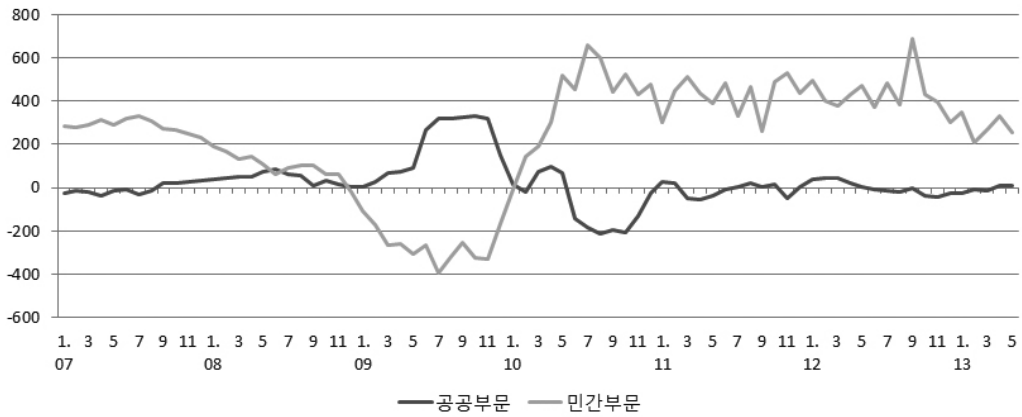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부문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2013년 5월 고용 동향의 부문별 특징

1.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

- ◎ 취업자 수 증가폭 둔화는 20대 후반 청년이 주도하였으며, 이들이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 증가를 상쇄
 - 20대 후반인 2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82천 명 감소하였으며, 30대 후반인 35~39세의 취업자 수도 74천 명 감소(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 크고, 여성은 고용률도 0.1%p 하락)
 - 반면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366천 명(230천 명+136천 명) 증가

〈표 2〉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2013. 5	생산가능인구 증감		
	2010	2011	2012	2011. 5	2012. 5	2013. 5		2011. 5	2012. 5	2013. 5
15~19세	27	22	4	1	23	-31	199	18	-51	-29
20대	-69	-58	-40	-98	-42	-53	3,627	-123	-52	68
20~24세	-11	-11	89	-15	74	29	1,307	27	122	155
25~29세	-59	-47	-129	-83	-116	-82	2,321	-151	-174	-87
30대	-4	-47	-31	-15	-95	11	5,759	-82	-115	-59
30~34세	45	44	79	57	39	85	2,908	43	37	65
35~39세	-49	-91	-110	-72	-134	-74	2,851	-125	-152	-125
40대	29	57	11	64	25	-28	6,671	13	14	35
50대	294	291	270	274	282	230	5,654	347	318	266
60세 이상	47	149	222	129	278	136	3,488	298	401	250
전 체	323	416	437	355	472	265	25,398	470	516	52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성별 고용률 남녀 모두 0.1%p씩 하락
 - 청년 고용률도 남녀 모두 감소
 - 30대 초반(30~34세) 여성 고용률은 대폭 증가(2.5%p)한 반면, 30대 초반 남성 고용률은 소폭 하락(-0.4%p)
 - 50세 이상의 고용률 상승(남녀 모두)

〈표 3〉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2010	2011	2012	2011. 5	2012. 5	2013. 5
전체	전체	58.7	59.1	59.4	60.1	60.5	60.4
	15~19세	6.1	6.8	7.0	6.2	7.0	6.1
	20대	58.2	58.5	58.1	59.5	59.3	57.8
	20~24세	44.3	43.5	44.5	45.1	45.8	44.4
	25~29세	68.2	69.7	69.2	70.1	70.3	69.6
	30대	72.0	72.2	72.7	72.8	72.6	73.3
	30~34세	70.6	71.0	72.2	71.8	72.1	73.0
	35~39세	73.2	73.3	73.2	73.7	73.2	73.6
	40대	77.8	78.4	78.3	79.2	79.3	78.7
	50대	70.9	71.6	72.2	72.8	73.5	74.0
	60세 이상	36.0	36.5	37.5	39.0	40.5	40.9
남성	전체	70.1	70.5	70.8	71.2	71.7	71.6
	15~19세	4.7	5.5	5.7	5.2	5.9	5.7
	20대	58.2	58.3	57.3	58.8	58.0	56.4
	20~24세	38.3	37.2	39.1	37.9	39.5	38.4
	25~29세	70.0	71.6	70.4	71.9	71.1	70.5
	30대	89.5	89.8	90.3	90.2	90.3	90.6
	30~34세	87.5	87.9	89.0	88.5	89.4	89.0
	35~39세	91.2	91.6	91.7	91.8	91.3	92.4
	40대	91.2	91.6	91.7	91.9	92.4	92.0
	50대	85.0	85.4	86.3	86.5	87.6	87.7
	60세 이상	48.7	49.3	49.9	51.5	52.7	53.3
여성	전체	47.8	48.1	48.4	49.5	49.8	49.7
	15~19세	7.7	8.1	8.3	7.3	8.1	6.5
	20대	58.3	58.7	58.8	60.0	60.5	59.1
	20~24세	48.8	48.2	48.9	50.6	50.9	49.4
	25~29세	66.2	67.8	68.0	68.2	69.4	68.8
	30대	53.7	53.7	54.5	54.4	54.2	55.4
	30~34세	52.9	53.2	54.8	54.1	54.0	56.5
	35~39세	54.3	54.1	54.1	54.8	54.4	54.3
	40대	64.2	64.9	64.6	66.1	65.9	65.0
	50대	56.9	57.7	58.1	59.2	59.5	60.3
	60세 이상	26.3	26.6	27.9	29.5	31.2	31.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청년의 고용률 감소는 남녀 모두 5세 단위로 세분한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남
 -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진입 연령대의 고용사정이 악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것

- ◎ 여성 30~34세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
 - 이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미혼여성이 증가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아직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여성 30~34세의 고용률 증가(2013년 4월)는 전년동월대비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 자층에서 주로 나타난 현상(표 4)
 - 고졸 이하 미혼여성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74.9% → 71.0%로 하락, 고졸 이하 기혼여성은 38.4%→39.5%로 1.1%p 상승한 반면, 전문대졸 이상 미혼여성 고용률은 80.5%→84.9%로 4.4%p, 전문대졸 이상 기혼여성 고용률은 47.9% → 51.6%로 3.7%p 상승
 - 근속기간을 알 수 있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여성 30~34세 임금근로자 증감을 학력별로 보면, 고졸 이하 학력자는 9천 명 증가하였는데, 신규채용이라 볼 수 있는 3개월 미만은 고졸 이하 학력자 중 14천 명 감소한 반면, 3년 이상은 19천 명 증가.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는 69천 명 증가하였는데, 이 중 3개월 미만 근속자는 1만 명 감소한 반면, 3년 이상 근속자는 54천 명 증가

〈표 4〉 여성 30~34세 학력 및 혼인상태별 고용률 추이(각 연도 1~5월 평균)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고졸 이하 미혼	71.7	67.5	62.6	67.5	68.7	74.9	71.0
고졸 이하 기혼	43.6	44.1	39.7	40.1	40.1	38.4	39.5
전문대졸 이상 미혼	79.8	82.2	78.3	81.4	80.2	80.5	84.9
전문대졸 이상 기혼	46.7	47.9	45.9	50.2	47.6	47.9	51.6
전 체	51.0	52.4	49.2	52.6	52.3	53.2	56.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 ◎ 취업자 수 증가폭의 둔화는 종사상 지위로 볼 때 상용직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
임금근로자의 감소에 기인
 - 임금근로자는 상용직 661천 명 증가에 힘입어 453천 명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78천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39천 명), 무급가족종사자(-71천 명) 모두 감소

〈표 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단위: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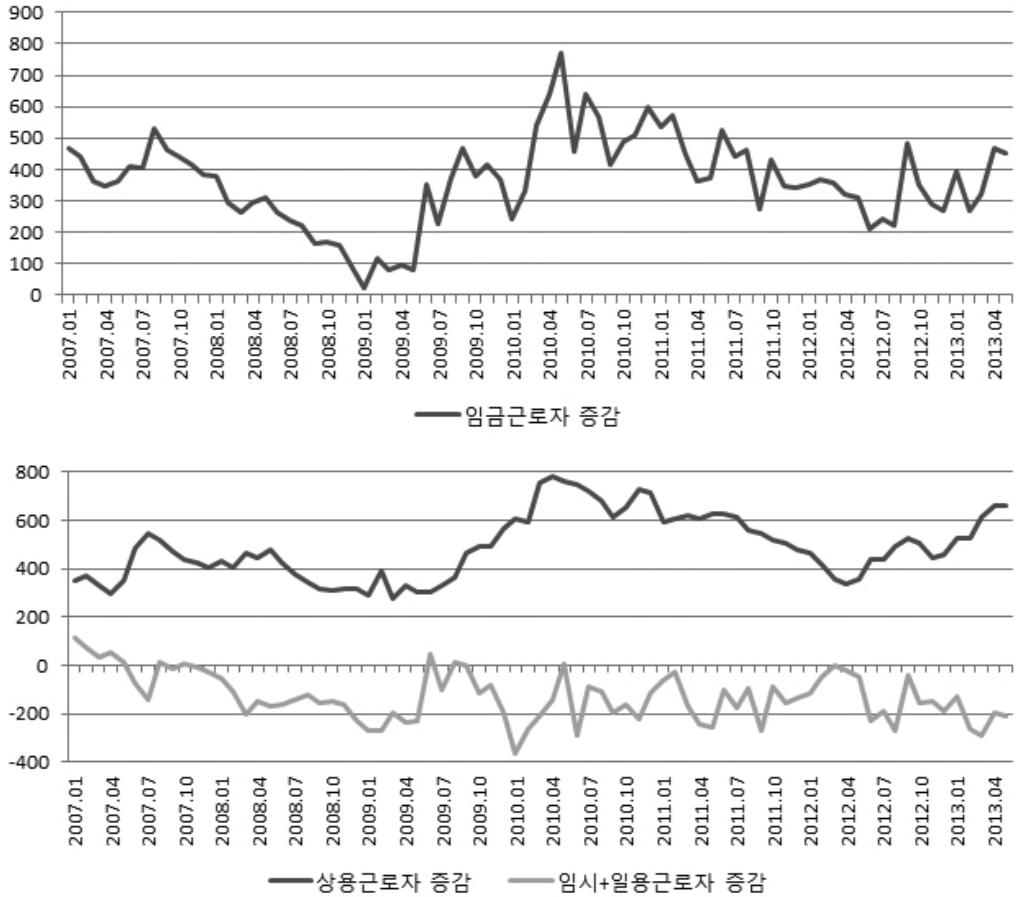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1. 5	2012. 5	2013. 5
전 체	323	416	436	355	472	265
임금	517	427	315	372	309	453
상용직	697	575	436	630	356	661
임시직	-34	-78	-2	-159	89	-190
일용직	-146	-70	-120	-99	-136	-19
비임금	-194	-11	121	-17	163	-18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8	6	43	5	113	-7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00	-5	81	-54	73	-39
무급가족종사자	-76	-12	-3	32	-23	-7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온 2010년
에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들어 2012년 하반기 이래 대략 30만 명 초반대를
중심으로 변동
 - 2012년 하반기부터 상용직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었으나 임시·일용직이 감소하여
임금근로자 증가 둔화
 - 지난 달에 이어 임금근로자 40만 명대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40만 명
대 증가는 추석 기저효과가 있었던 2012년 9월을 제외하면 2011년 10월 이래 처음
(그림 6)

[그림 6]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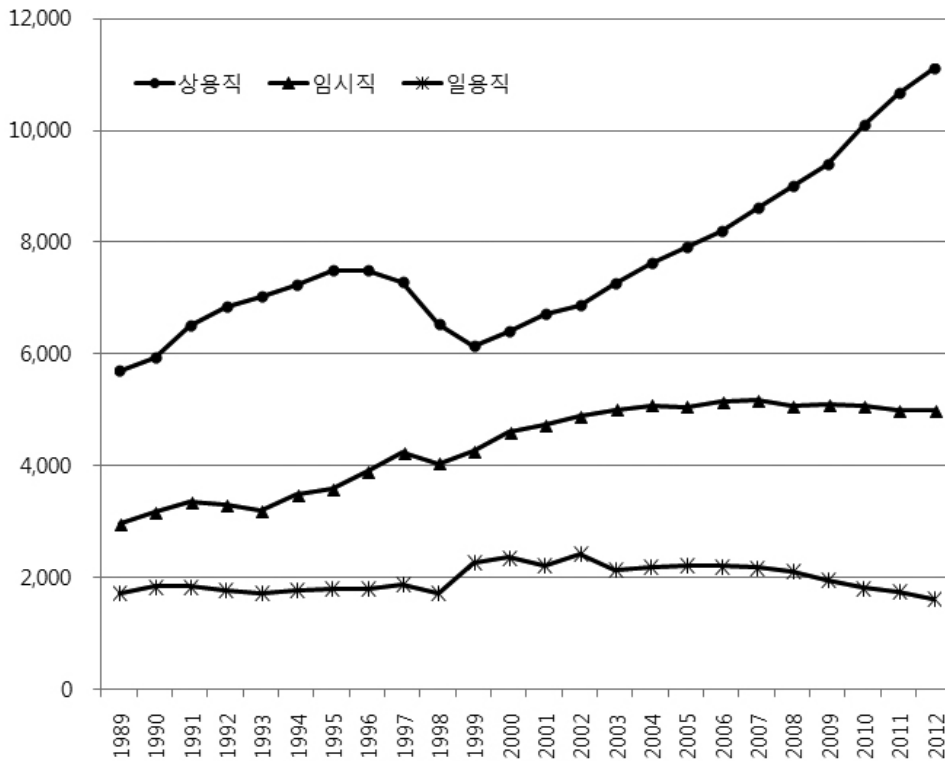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상용직의 증가는 오랜 기간 지속된 장기추세임(매월 고용동향분석 창간호(2013.6))
 - 1989년 이후 상용직 근로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 1997년 외환위기에 따라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까지 감소세 지속
 - 2000년부터 다시 시작된 상용직 증가추세는 2012년까지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증가세를 지속
 - 이러한 증가세 가운데에도 2013년 4월과 5월의 659천 명 증가 및 661천 명 증가는 이례적인 것으로 2010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

[그림 7]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수 추세

(단위:천 명)



자료:매월 고용동향분석 창간호(2013. 6)

- ◎ 연령별로 보면, 상용직 증가는 50대(204천 명 ↑), 40대(201천 명 ↑), 30대(188천 명 ↑)가 주도하고 있으며, 임시직은 40대 이하에서 감소(표 6)
 - 25~29세는 상용직도 감소(23천 명 ↓)

- ◎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이 60만 명 이상 급증한 3~5월 평균 업종별 상용직 증감을 보면, 제조업(170천 명 ↑)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0천 명 ↑)의 증가가 가장 큼
 - 제조업 상용직 증가는 주로 남성,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용직 증가는 주로 여성에게 집중
 - 이 외에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9천 명 ↑, 도매 및 소매업 47천

명↑, 협회 및 단체·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42천 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0천 명↑ 순으로 나타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은 4천 명 증가 - 다만, 전년동기대비 상용직 증가 644천 명 중 80.4%에 해당하는 518천 명이 3년 이상 근속자에서 증가하여 상용직 신규채용이 늘어서 증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 상용직 증가는 1990년대 초반 이래 지속되어온 장기 추세이지만(매월 고용동향 분석 창간호(2013.6), 35쪽 참조), 최근 3개월 간 나타난 증가세는 이와 같은 장기추세를 크게 뛰어넘는 것임. 입직이 줄어도 이직이 더 많이 줄면 고용량이 증가할 수 있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60만 명을 넘는 상용직 증가가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의 결과로,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 입·이직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영향의 반영이라 판단됨

〈표 6〉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취업자 수 전년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증감			전년동월대비 증감		
		2010	2011	2012	2011. 5	2012. 5	2013. 5
15~24세	상용직	19	0	56	-7	55	29
	임시직	0	26	39	6	53	-40
	일용직	-8	-1	2	-9	5	9
	고용원 있는 자영자	-2	2	0	1	1	0
	고용원 없는 자영자	5	-16	1	-22	-4	-3
	무급가족종사자	2	0	-5	15	-13	3
25~29세	상용직	18	20	-69	18	-88	-23
	임시직	-44	-57	-47	-75	-32	-14
	일용직	-12	-15	-10	-28	-5	-9
	고용원 있는 자영자	-5	7	1	-5	13	-15
	고용원 없는 자영자	-13	1	-6	1	-4	-11
	무급가족종사자	-4	-3	2	6	0	-11
30~39세	상용직	149	155	90	215	6	188
	임시직	-52	-90	-86	-103	-48	-134
	일용직	-55	-24	-38	-16	-53	-8
	고용원 있는 자영자	15	-11	-10	-7	2	-23
	고용원 없는 자영자	-42	-74	20	-105	11	-3
	무급가족종사자	-20	-3	-7	1	-14	-9
40~49세	상용직	244	221	141	243	134	201
	임시직	2	-37	-39	-41	-35	-62
	일용직	-81	-53	-64	-62	-62	-63
	고용원 있는 자영자	-33	-25	5	-33	44	-53
	고용원 없는 자영자	-69	-20	-21	-17	-32	-33
	무급가족종사자	-34	-28	-11	-26	-24	-18
50~59세	상용직	186	141	182	141	204	204
	임시직	66	67	54	48	55	12
	일용직	8	-4	-15	-10	-39	47
	고용원 있는 자영자	19	19	22	29	19	15
	고용원 없는 자영자	17	56	36	50	39	-29
	무급가족종사자	-1	11	-9	16	4	-20
60세 이상	상용직	81	38	37	20	45	62
	임시직	-6	13	77	5	96	47
	일용직	2	27	5	25	18	6
	고용원 있는 자영자	-12	15	26	19	34	-3
	고용원 없는 자영자	0	47	51	40	63	41
	무급가족종사자	-18	10	26	21	23	-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7〉 2013년 3~5월 업종별 상용직 근로자 수 및 전기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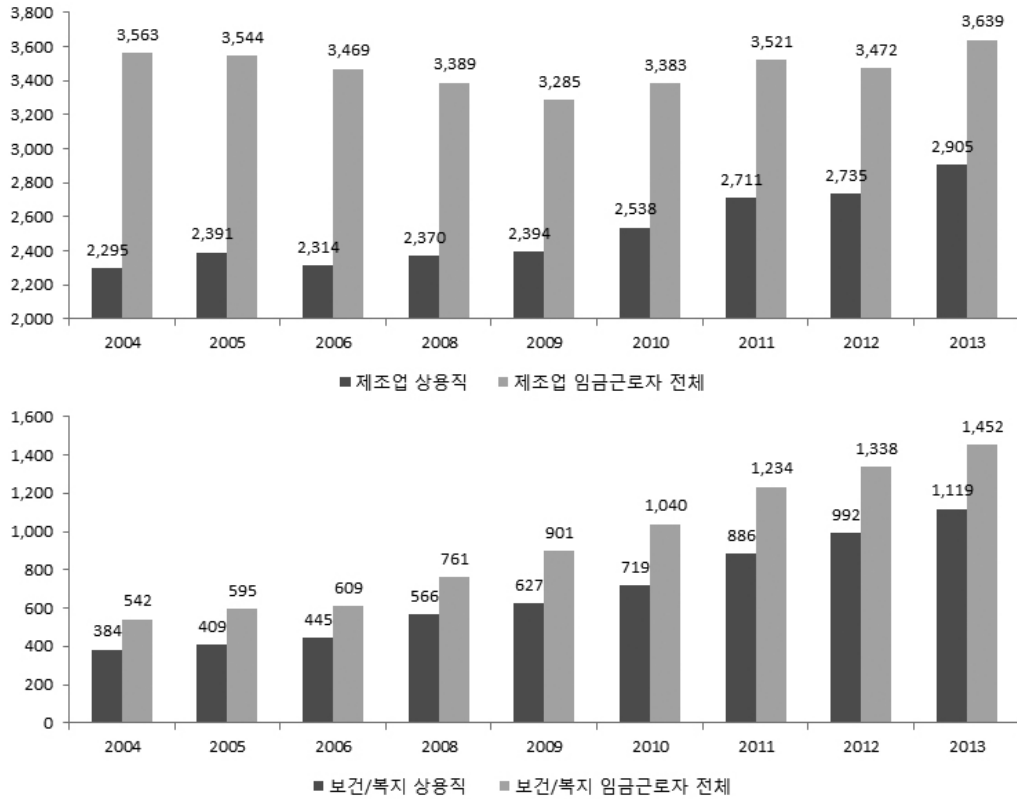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상용직 증감	상용직 수	해당 업종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제조업	170	2,905	79.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7	1,119	77.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9	757	65.3
도매 및 소매업	47	1,061	50.7
협회 및 단체·수리, 기타개인서비스업	42	375	5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0	816	90.4
숙박 및 음식점업	40	230	20.0
금융 및 보험업	26	539	65.0
전기·가스·수도	21	85	92.8
교육서비스업	18	927	67.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	569	88.4
부동산 및 임대업	11	181	55.9
건설업	10	559	42.3
운수업	8	569	7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7	107	43.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	727	73.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11	49	80.1
전체(누락업종 포함)	644	11,617	64.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제조업과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상용직/임금근로자 수 추이(각 연도 3~5월 평균)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8〉 각 연도 3~5월 근속기간별 · 학력별 상용직 근로자 수 및 전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상용직 근로자 수				전기대비 증감			
		2010	2011	2012	2013	2010	2011	2012	2013
전체	3개월 미만	613	652	671	660	144	39	19	-11
	1년 미만	1,206	1,314	1,338	1,346	216	108	24	9
	1년~3년 미만	2,159	2,316	2,450	2,578	189	157	134	128
	3년 이상	6,027	6,341	6,515	7,033	218	315	174	518
	전체	10,005	10,623	10,973	11,617	766	618	350	644
전문대졸 이상	3개월 미만	342	388	391	378	58	46	3	-13
	1년 미만	646	742	762	749	80	96	20	-13
	1년~3년 미만	1,286	1,384	1,485	1,552	102	98	100	67
	3년 이상	3,686	3,914	4,030	4,394	113	228	116	363
	전체	5,960	6,428	6,668	7,072	353	468	240	405
고졸 이하	3개월 미만	271	264	280	282	86	-7	16	2
	1년 미만	560	573	576	597	136	13	4	21
	1년~3년 미만	873	932	965	1,026	87	58	33	61
	3년 이상	2,341	2,427	2,485	2,640	104	86	58	155
	전체	4,045	4,195	4,306	4,545	413	150	111	23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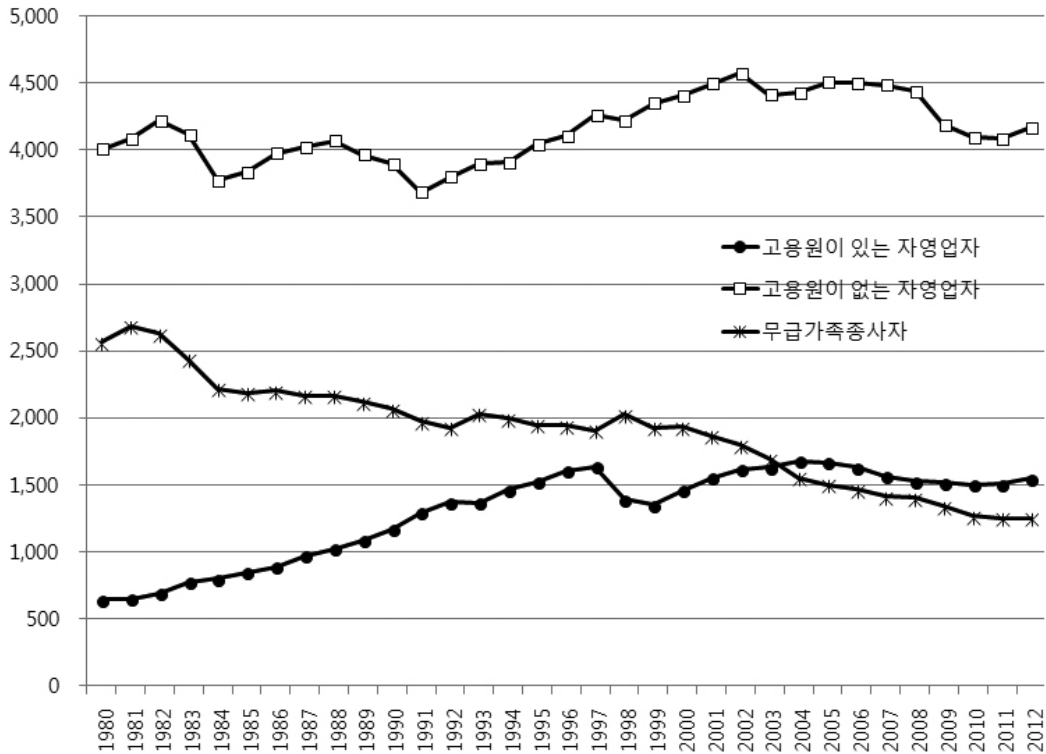
3. 비임금 근로자 추이

◎ 비임금근로자 규모와 장기적인 추이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장기적으로 볼 때 400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 이후 400만 명 남짓한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후 2012년에 다소 회복세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이며 강한 상승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는데, 2005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단기적인 일부 등락을 제외하면 지속적이며 강한 감소 추세
- 최근의 규모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폭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반면, 고용원이 있는 경우 2005년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가능

[그림 9] 비임금근로자 규모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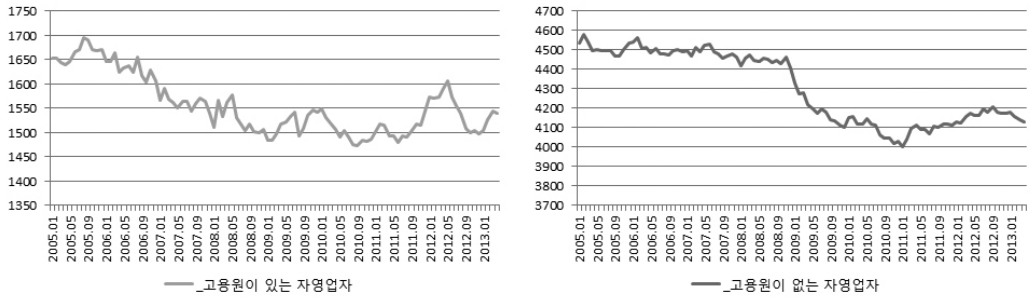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자영업 구조조정을 계절조정 자료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05~2011년, 특히 2005~2009년 사이 꾸준히 숫자가 감소하였으며 이후 미약한 회복세를 보임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약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9~2010년 사이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감소

[그림 10] 고용원 여부별 자영업자 수 추이(계절조정)

(단위: 천 명)



자료: 매월 고용동향분석 창간호(2013.6).

◎ 자영업자 감소폭이 커진 최근 3개월(2013년 3~5월)에 자영업 일자리를 잃고 미취업 상태에 빠진 신규 실업진입자 수는 117천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던 2012년 동기의 122천 명보다도 적어 현재의 자영업 감소는 구조조정의 심화보다는 진입감소의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

- 경제상황이 호전되면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베이비 부머 등 자영업 선택 유인이 큰 계층의 자영업 진입이 다시 증가하면서 자영업자 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신규 실업진입자 수 자영업 전직 미취업자로 일자리를 잃은 지 3개월 미만된 사람들의 숫자. 자영업에서 곧바로 임금근로자로 유입되거나 다른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 숫자에 잡히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임금근로자 신규 유입도 감소추세여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표 9〉 최근 자영업자 실업 진입(2013년 3~5월 평균)

(단위: 천 명)

	평균 실업진입자 수(가)	평균 자영업자 수(나)	(가)의 증감	(나)의 증감	1분기 자영업자 수 대비 (가)의 비율 증감(%p)
2008	130	6,020	-8	-55	-0.11
2009	144	5,756	14	-264	0.32
2010	134	5,649	-9	-108	-0.12
2011	146	5,619	12	-30	0.27
2012	122	5,777	-25	158	-0.52
2013	117	5,692	-4	-85	-0.06

주: 각 연도 1분기 자영업자 수 대비 (가)의 비율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2.24%, 2.56%, 2.44%, 2.71%, 2.19%, 2.13%였음. 이는 자영업 이직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엄밀하게 계산하려면 3~5월을 기준으로 볼 경우 12~2월 자영업자 수를 분모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적절한 계절조정수치를 구할 수 없어 엄밀한 계산은 불가능하므로 편의상 1분기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노동시장 입·이직 감소 지속

◎ 노동시장의 유량(flow)은 2012년 하반기부터 감소

- 전체 입직자 수와 전체 이직자 수 모두 뚜렷한 마이너스(-)를 보이지만, 최근 들어 감소폭은 줄어들어 왔음
- 그러나 이와 같은 하락폭 감소는 전년도 4월 큰 폭의 입직 하락 등의 기저효과와 연관될 수 있어 유량 증가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함. 제조업의 경우 입이직이 증가로 반전되었지만, 마찬가지로 이유로 노동시장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판단하기 이룸

[그림 11] 임금근로자 입직자 수, 이직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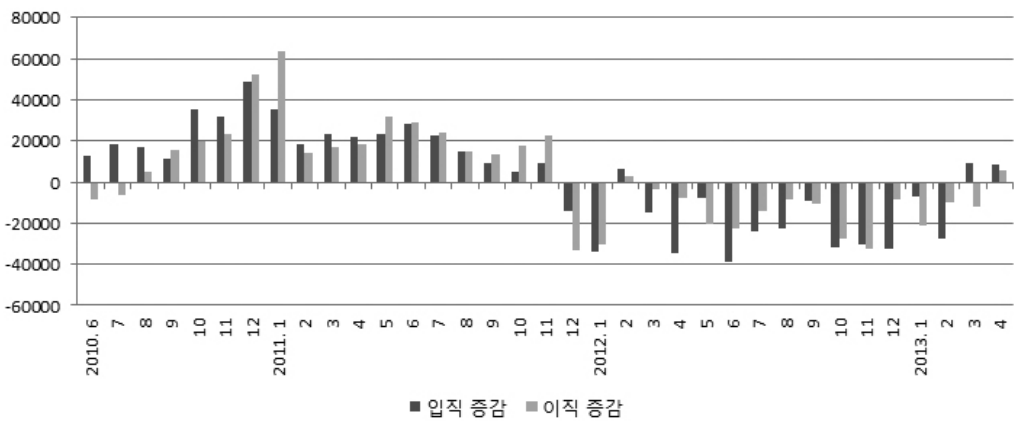
(단위: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그림 12] 제조업 임금근로자 입직자 수, 이직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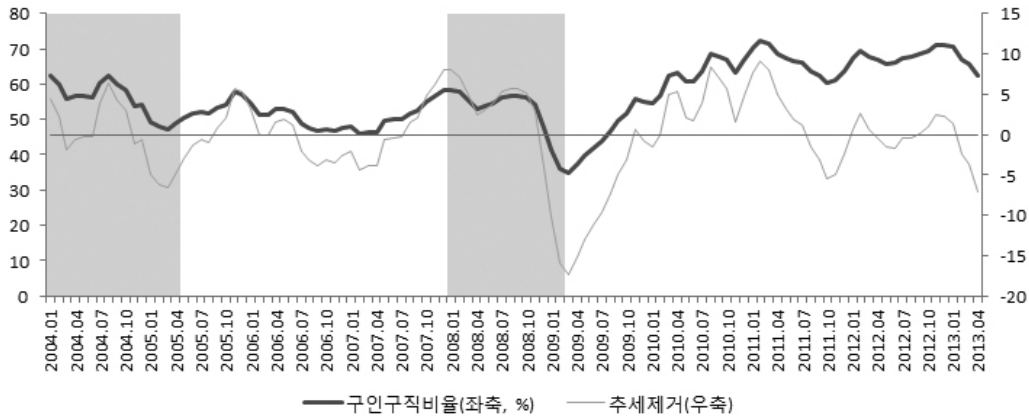
(단위: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연도.

- ◎ 노동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구인구직비율의 최근 추이를 보면, 2012년 11월 71.2로 상승했으나 그 이후 다소 하락해 2013년 4월 현재 62.6을 기록
 - 현재 구인구직비율은 원계열과 추세제거치 모두 증가 또는 감소를 향해 뚜렷한 방향을 보이고 있지 않아 이를 통해 노동시장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

[그림 13] 구인구직비율 추이(계절조정)



주: 통계청이 한국고용정보원의 구인구직비율에서 계절변동, 불규칙 변동요인을 제거한 계열임. 추세제거치는 이 계열에서 HP 필터를 이용해 장기추세를 제거한 것임. 음영은 통계청 경기순환 기준순환일의 경기수축기임.

자료: 통계청, KOSIS.

5. 사업체 특성에 따른 취업자 변화

- ◎ 제조업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서비스업(특히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의 고용증가폭 둔화를 제조업이 다소 만회
 - 제조업 고용은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05천 명 증가, 서비스업 고용은 187천 명 증가(2012년 5월 서비스업 고용 531천 명 증가)
 - 제조업 고용은 2012년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그동안 고용증가폭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최근 3개월 연속 100천 명 이상 증가

〈표 10〉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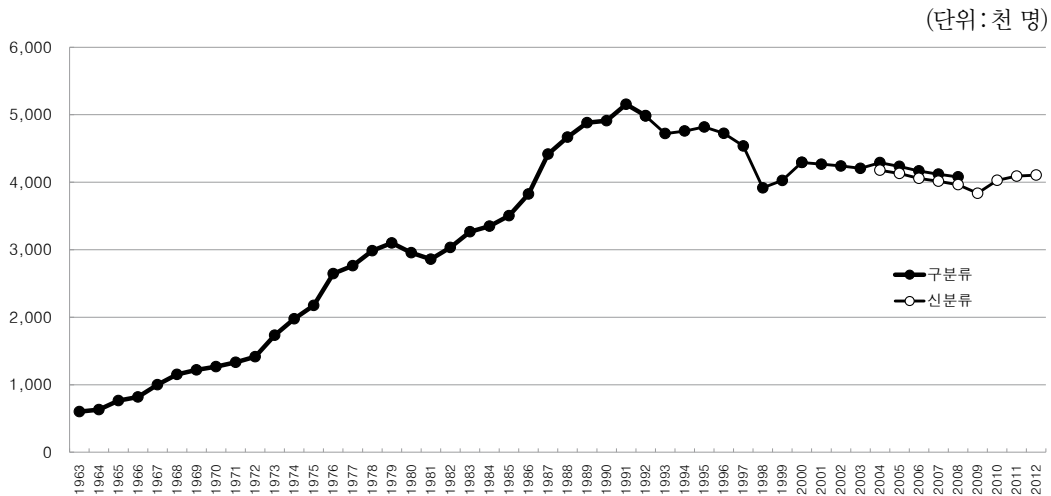
	2010	2011	2012	2011. 5	2012. 5	2013. 5
전 체	323	415	436	355	472	265
농림어업	-84	-29	-16	22	-22	-40
제조업	191	63	14	101	-67	105
서비스업	200	386	416	260	531	187
도소매업	-20	58	51	-4	109	-36
운수업	33	52	48	37	53	27
숙박음식점업	-47	-36	53	-71	53	21
금융, 보험업	42	38	-4	37	0	29
부동산 등	17	-31	0	-44	20	-23
전문, 과학 등	40	77	67	75	61	-15
사업시설관리업 등	78	64	30	99	3	109
교육서비스업 등	-33	-113	58	-146	88	-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등	155	158	88	215	92	13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등	-11	37	-8	52	1	-46
협회 및 단체, 수리 등	5	45	25	4	25	25
건설업	33	-2	22	-27	33	-13
공공	-71	-9	0	-37	1	9
민간	395	424	436	392	471	25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제조업 취업자 수 변화(매월 고용동향분석 창간호(2013. 6))

- 2001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09년까지 단기적인 등락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구분류)
- 2009년을 저점으로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2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둔화되고 있으며,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신분류)
- 증가폭 : 123천 명(2013년 3월) → 165천 명(2013년 4월) → 105천 명(2013년 5월)

[그림 14] 제조업·취업자 수 추이



자료: 매일 고용동향분석 창간호(2013. 6).

◎ 2013년 5월 고용증가폭 감소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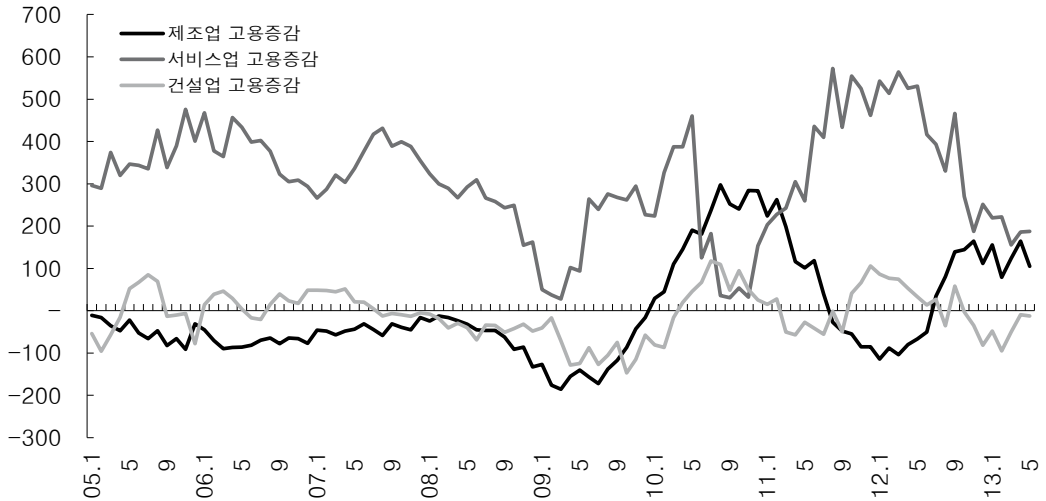
- 서비스업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187천 명 증가에 머물러 2012년 5월의 실적(531천 명 증가)에 크게 미흡
- 증가폭 : 155천 명(2013년 3월) → 186천 명(2013년 4월) → 187천 명(2013년 5월)
- 특히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도소매업종(36천 명 ↓), 교육서비스업(41천 명 ↓)에서의 고용감소가 두드러짐

◎ 서비스업의 고용증가폭 둔화로 직종으로 볼 때, 서비스와 판매직의 고용증가폭이 둔화

- 반면 제조업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2012년 10월부터 전년동월대비 100천 명을 상회하며 증가폭이 확대되어오다 5월 현재 75천 명 증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사무직 종사자에서 2개월 연속 증가(37천 명 ↑)

[그림 15] 제조업·서비스업·건설업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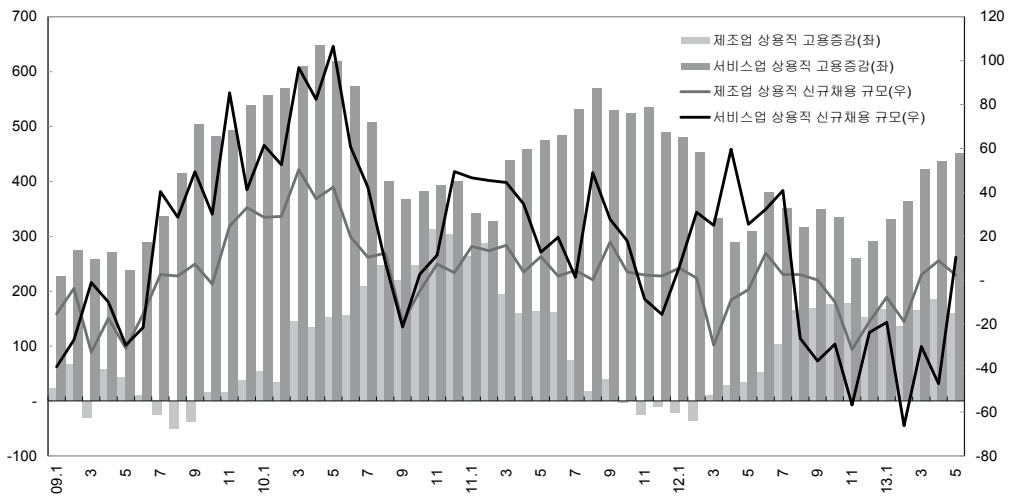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16] 제조업·서비스업의 상용직 고용증감 및 상용직 신규채용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건설업 고용감소폭 완화

- 상용직 증가가 건설업 고용감소폭 완화에 주로 기여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고용 감소폭은 확대(3천 명 감소(2013년 4월) → 17천 명 감소(2013년 5월))
- 감소폭 : 51천 명(2013년 3월) → 10천 명(2013년 4월) → 13천 명(2013년 5월)

◎ 대기업 고용증가폭 확대

-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은 150천 명 증가하여 2013년 1월부터 5개월 연속 100천 명 이상의 고용증가세 유지·확대(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2012년 5월 8천 명↓).
- 대기업의 고용증가는 상용직(전년동월대비 142천 명↑), 30대 연령층(131천 명↑), 대졸 이상 학력층(99천 명↑)에서 주도
 - ※ 대기업 상용직의 경우 신규채용은 2012년에 이어 감소(2천 명↓)한 반면, 12개월 이상 근속자가 166천 명 증가(2012년 32천 명↑)
- 대기업의 신규채용 감소는 2012년에 이어 2013년 5월에도 지속되어 1천 명 감소한 반면, 12개월 이상 근속자는 큰 폭으로 증가(179천 명↑)

〈표 11〉 사업체 규모별, 직종별 취업자 고용증감 및 근속기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5	2012. 5	2013. 5
전 체		323	415	436	355	472	265
규모	300인 미만	354	378	381	280	480	115
	3개월 미만	12	-81	-90	-99	-32	-14
	3~12개월 미만	176	-76	29	-151	64	-203
	12개월 이상	360	547	320	548	284	521
	300인 이상	-31	37	55	75	-8	150
	3개월 미만	-2	0	-18	8	-25	-1
	3~12개월 미만	-5	28	-13	40	-4	-29
	12개월 이상	-24	9	86	26	22	179
직종	관리자	16	-47	-51	-1	-72	-8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45	114	106	138	135	101
	사무종사자	150	252	108	242	125	125
	서비스종사자	-85	35	77	34	49	-3
	판매종사자	-55	-39	114	-90	143	25
	농림어업숙련종사자	-83	-22	6	25	13	-33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53	12	29	-32	28	-5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20	69	99	67	116	136
	단순노무종사자	62	42	-52	-27	-65	54

주: 근속기간은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함. 3개월 미만 근속자를 신규채용으로 간주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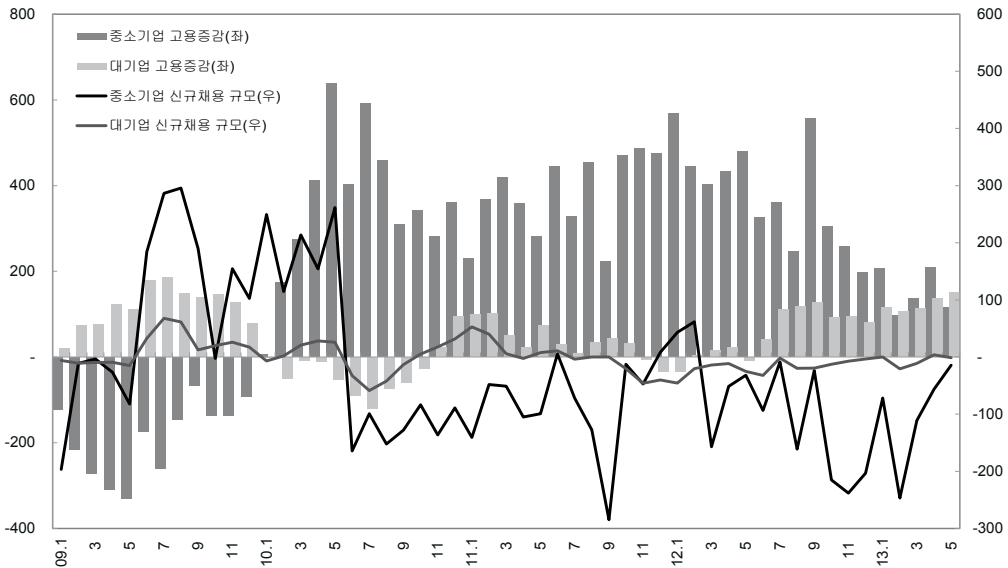
◎ 중소기업 고용증가폭 둔화

-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고용증가는 115천 명에 그쳐 2012년 5월 실적 480천 명에 비해 크게 미흡
- 중소기업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520천 명 증가한 반면, 임시직(194천 명↓), 자영업자(117천 명↓)는 감소
- 중소기업 신규채용은 2012년에 이어 감소한 반면, 12개월 이상 근속자는 전년동월 대비 521천 명 증가(2012년 5월 284천 명↑)

- 자영업자의 고용감소(117천 명 ↓)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5인 미만, 5~10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고용증가폭이 크게 둔화(5인 미만: 80천 명 ↓, 5~9인: 29천 명 ↓)
- ※ 도소매업(54천 명 ↓), 음식숙박업(28천 명 ↓), 개인서비스업(25천 명 ↓)

[그림 17] 중소기업·대기업 고용증감 및 신규채용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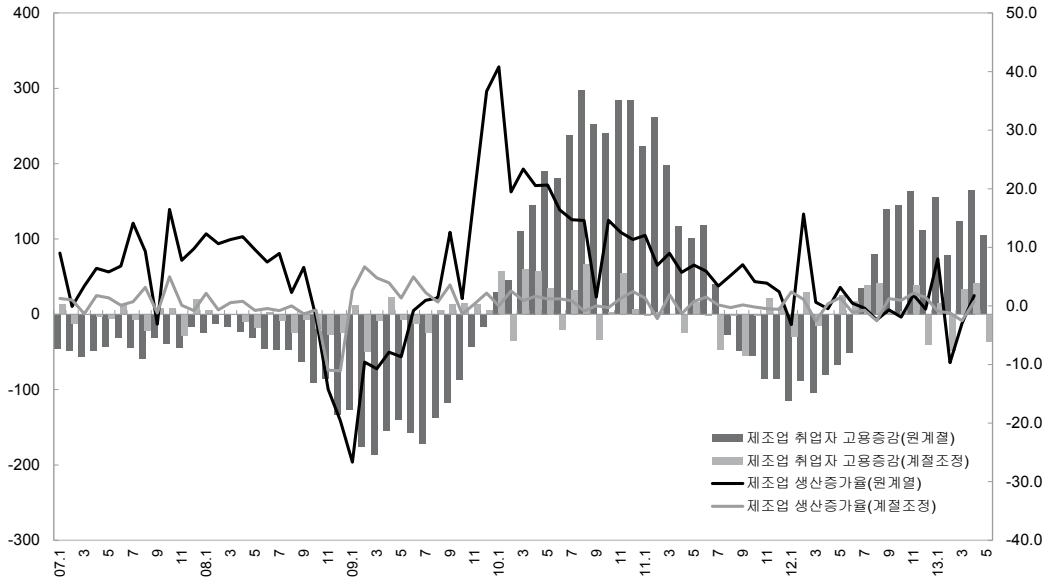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1) 제조업 부문 : 생산 및 고용증가 지속

- ◎ 제조업 부문의 생산증가율은 2013년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8% 증가(전월대비 0.8% 증가)하였으며, 수출증가율 또한 0.3% 증가세로 전환(전월대비 0.3% 증가세로 전환)
- 더불어 제조업 부문의 고용은 2013년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65천 명 증가(5월 현재 105천 명 ↑,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37천 명 ↓)

[그림 18] 제조업 생산증가율과 취업자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제조업 생산증가율(원계열, 계절조정)은 4월 현재 증가세로 전환, 수출증가율(원계열, 계절조정)은 2013년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4월 현재 증가세로 전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표 12〉 제조업 취업자의 특징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5	2012. 5	2013. 5
전 체		191	63	14	101	-67	105
지위	상용직	184	110	84	163	34	159
	임시직	4	-37	-18	-51	-34	7
	일용직	-26	-4	-26	-8	-39	-7
	고용원 있는 자영자	11	2	-7	-3	9	-25
	고용원 없는 자영자	-4	-3	-6	8	-17	-17
	무급가족종사자	22	-5	-12	-8	-19	-12
연령	20세 미만	7	1	1	-1	10	-2
	20대	24	-19	-25	-3	-48	4
	20~24세	11	-16	13	-7	13	19
	25~29세	13	-4	-38	3	-60	-15
	30대	12	0	-23	9	-81	92
	40대	38	20	-3	39	-35	-30
	50대	92	46	49	50	71	24
	60세 이상	19	15	16	9	15	16
학력	고졸 이하	16	5	-28	0	-25	-48
	고졸	89	-29	17	-22	-26	98
	전문대졸	34	46	29	53	13	52
	대졸 이상	52	41	-4	69	-29	3
규모	300인 미만	205	76	-41	105	-89	55
	300인 이상	-14	-13	55	-3	23	4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제조업 고용은 고졸 생산직이 주도하였으며, 대졸 이상은 6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5월 현재 3천 명 증가
- 2012년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제조업 부문의 고용은 고졸학력자를 중심으로 생산직(8직종)에서 주도(전년동월대비 78천 명 ↑)
 - 제조업 고졸 상용직은 주로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30) 산업에서 각각 28천 명, 24천 명 증가

〈표 13〉 제조업 고졸 학력자의 고용 특징

(단위: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5	2012. 5	2013. 5
전 체		89	-29	17	-22	-26	98
지위 · 연령	상용직	88	13	52	32	26	89
	20대	7	-23	0	-14	0	-9
	30대	22	-17	3	-18	-13	23
	40대	28	44	18	60	1	15
	50대	20	12	29	12	34	54
	60세 이상	8	-2	2	-5	2	4
규모	300인 미만	96	-14	-1	-12	-42	75
	300인 이상	-7	-15	18	-10	16	22
직종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3	-8	45	-2	56	78
	단순노무직	28	-8	-29	-7	-74	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반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대졸 이상 학력층의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3천 명 증가 (25~29세 전년동월대비 7천 명 ↑, 30대 연령층 전년동월대비 32천 명 ↑)
- 대졸 이상 학력층의 25~29세 연령층은 2012년 4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해오다 5월 현재 증가세로 전환
 - ※ 고용증감폭 : -25천 명(2013년 3월) → -7천 명(2013년 4월) → 7천 명(2013년 5월)
- ◎ 임시직 고용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제조업 임시직은 2개월 연속 소폭 증가
 - 20~30대 연령층(전년동월대비 19천 명 ↑)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 명 증가
 - 제조업 임시직의 신규채용은 전년동월대비 13천 명 증가
- ◎ 제조업에서 청년층 고용은 증가하였으나, 25~29세 연령층의 고용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 명 감소
 - 2013년 5월 제조업 상용직은 전년동월대비 159천 명 증가한 반면, 25~29세 연령층의 상용직은 2012년에 이어 감소세 지속(전년동월대비 20천 명 ↓)

- 또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이들 25~29세 연령층의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17천 명 감소하여 4개월 연속 감소

◎ 한편 제조업 부문에서의 30대 연령층에서 전년동월대비 92천 명 증가하였으며, 2012년 8월부터 증가세 유지

◎ 제조업 신규채용 증가

〈표 14〉 제조업 근속기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5	2012. 5	2013. 5
제조업 임금근로자	전 체	162	69	40	104	-39	158
	3개월 미만	26	-11	-21	-16	-42	24
	3~12개월 미만	87	-9	-20	-6	8	-46
	12개월 이상	49	90	80	126	-5	180
고졸 임금근로자	전 체	78	-21	17	-17	-29	111
	3개월 미만	14	-18	-3	-35	-15	40
	3~12개월 미만	45	-25	-8	-30	3	-6
	12개월 이상	20	22	27	48	-18	78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	전 체	42	44	2	71	-31	32
	3개월 미만	8	5	-7	10	-17	1
	3~12개월 미만	22	4	0	8	9	-10
	12개월 이상	12	35	9	53	-23	41
300인 미만	전 체	205	76	-41	107	-62	109
	3개월 미만	18	-7	-19	-6	-39	21
	3~12개월 미만	77	-12	-16	-12	12	-44
	12개월 이상	111	95	-7	126	-34	133
300인 이상	전 체	-14	-13	55	-3	23	49
	3개월 미만	9	-4	-2	-10	-2	3
	3~12개월 미만	10	2	-4	7	-4	-2
	12개월 이상	-33	-11	61	0	29	47
상용직	전 체	10	184	110	163	34	159
	3개월 미만	18	8	-7	11	-4	2
	3~12개월 미만	94	1	13	1	29	-21
	12개월 이상	72	101	78	151	10	17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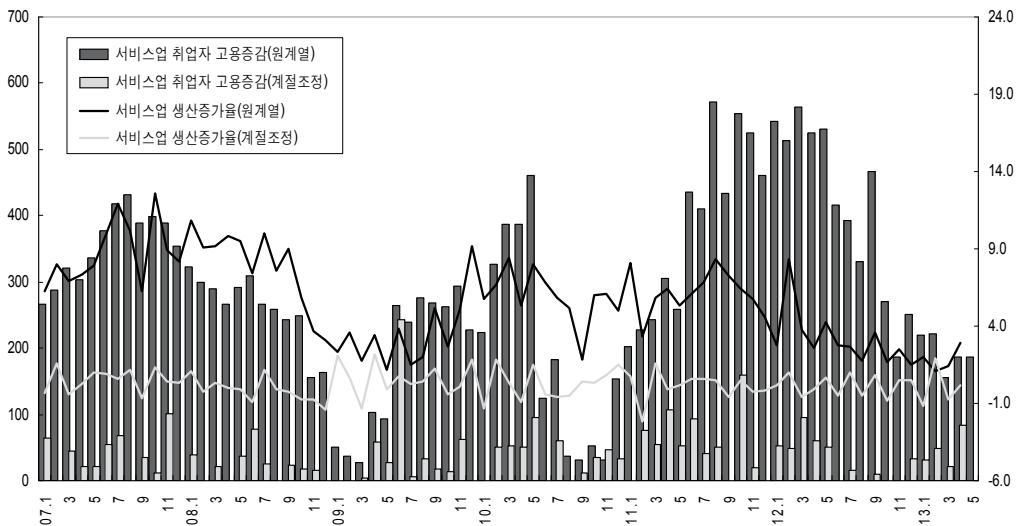
- 제조업 부문의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58천 명 증가
- 3개월 미만 근속자가 전년동월대비 24천 명 증가하여 기업의 신규채용이 3개월 연속 증가
- 제조업 신규채용은 단순노무직(9)에서 증가(20천 명 ↑)했으며, 제조업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7) 직종에서는 신규채용 감소(6천 명 ↓)
- 제조업 고용은 대부분 근속기간이 12개월 이상 근로자에서 증가(180천 명 ↑)

(2) 서비스업 부문 : 생산증가율 상승 및 고용증가폭 둔화

-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2013년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전월대비 0.2% 증가
- ◎ 2013년 5월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은 전년동월대비 187천 명 증가에 머물러 고용증가

[그림 19] 서비스업 생산증가율과 취업자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폭이 크게 둔화

- 이는 20~30대 연령층에서 임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감소와
-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고용증가폭의 둔화에서 비롯
-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전문대졸 학력층의 고용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들은 주로 20~30대 연령층

〈표 15〉 서비스업 취업자의 특징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5	2012. 5	2013. 5
서비스업		200	386	416	260	531	187
지위	상용직	502	475	345	475	309	452
	임시직	-46	-57	36	-133	146	-186
	20~30대 연령층	-68	-119	-57	-130	-4	-170
	일용직	-85	-39	-65	-55	-55	1
	고용원 있는 자영자	-33	6	52	-10	112	-48
	고용원 없는 자영자	-78	2	53	-39	30	-3
	무급가족종사자	-59	0	-6	22	-11	-28
연령	20대	-79	-21	-22	-71	-15	-34
	20~24	-26	5	75	-14	58	16
	25~29	-53	-26	-97	-57	-73	-50
	30대	21	1	26	12	24	-66
	60세 이상	51	113	164	78	215	88
	임금근로자	47	53	102	32	133	89
	비임금근로자	4	60	62	46	83	-1
규모	300인 미만	200	329	417	177	560	102
	임시직	-17	-64	61	-135	174	-183
	300인 이상	0	57	-1	83	-29	85
학력	고졸이하	-46	-22	14	-88	60	-117
	고졸	45	75	20	30	48	-48
	전문대졸	48	101	197	93	214	101
	상용직	65	122	106	120	109	38
	20~30대 연령층	17	7	122	0	137	-16
	도소매업	-24	-9	72	-35	97	1
	교육서비스업	-20	-10	27	-18	42	-25
	대졸 이상	152	232	185	224	209	25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300인 미만 영세사업체에서 고용 또한 임시직을 중심으로 크게 둔화
- ◎ 서비스업 중분류별로 보면,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91)에서 고용감소폭(각각 54천 명↓, 44천 명↓)이 컸으며, 제조업 관련 사업지원서비스업(75)에서 고용증가(116천 명↑)
 - 고용감소가 컸던 임시직은 도매 및 상품 중개업(46), 교육서비스업(85)에서 감소(40천 명↓, 75천 명↓)
- ◎ 서비스업 부문의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67천 명 증가에 머물러 2012년(399천 명)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신규채용은 감소
 -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유사하게 12개월 이상 근속자가 증가(469천 명↑)

〈표 16〉 서비스업 근속기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5	2012. 5	2013. 5
서비스업 임금근로자	전 체	371	379	317	287	399	267
	3개월 미만	-10	-44	-62	-53	30	-60
	3~12개월 미만	85	-34	55	-106	63	-142
	12개월 이상	295	456	323	446	307	469
고졸 임금근로자	전 체	111	57	35	30	57	-7
	3개월 미만	-12	-18	-42	-15	-5	-51
	3~12개월 미만	36	-47	33	-96	40	-101
	12개월 이상	87	122	43	141	22	145
대졸 임금근로자	전 체	183	241	122	254	115	261
	3개월 미만	20	-6	-15	20	-6	-5
	3~12개월 미만	43	18	-4	11	-19	-4
	12개월 이상	120	229	141	223	141	270
300인 미만	전 체	371	322	317	205	428	182
	3개월 미만	1	-47	-45	-71	59	-60
	3~12개월 미만	99	-58	67	-134	67	-116
	12개월 이상	271	427	296	410	302	357
300인 이상	전 체	0	57	-1	82	-29	85
	3개월 미만	-11	4	-17	18	-29	0
	3~12개월 미만	-14	24	-11	28	-4	-26
	12개월 이상	24	29	28	36	5	111
상용직	전 체	502	475	345	475	309	452
	3개월 미만	46	23	4	13	26	10
	3~12개월 미만	134	79	65	87	52	-33
	12개월 이상	322	373	276	375	231	47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부표 1〉 제조업 중분류별 생산증가율·취업자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생산			고용			고용증감(4월)			고용증감(5월)			고용비중		
	'11.4	'12.4	'13.4	'11.4	'12.4	'13.4	'11.4	'12.4	'13.4	'11.5	'12.5	'13.5	'11.4	'12.4	'13.4
제조업	7.1	0.0	1.8	4,107	4,027	4,192	101	-80	165	101	-67	105	100.0	100.0	100.0
식료품	1.2	-0.8	0.5	319	335	356	-32	15	21	-10	16	3	7.8	8.3	8.5
음료	1.4	1.3	3.9	27	20	17	-2	-6	-3	-3	-5	-4	0.7	0.5	0.4
담배	-5.6	25.7	7.1	-	-	-	-	-	-	-	-	-	0.0	0.0	0.0
섬유제품	4.0	-7.0	3.8	179	173	162	9	-6	-11	6	-2	-17	4.4	4.3	3.9
의복 및 모피	-6.0	-5.0	-1.5	301	282	269	12	-18	-13	3	-12	-28	7.3	7.0	6.4
가죽 및 신발	-7.9	-1.8	0.5	63	63	65	1	0	2	-3	3	7	1.5	1.6	1.6
나무제품	0.3	-15.7	7.5	40	45	47	5	4	2	6	5	6	1.0	1.1	1.1
종이제품	-2.1	2.7	3.4	68	65	67	-1	-4	2	-6	4	-3	1.7	1.6	1.6
인쇄 및 기록매체	-13.5	-0.5	-5.4	87	98	87	2	11	-12	6	1	-9	2.1	2.4	2.1
석유정제	12.5	-4.5	-7.2	-	-	-	-	-	-	-	-	-	0.0	0.0	0.0
화학제품	-2.0	4.8	6.4	158	149	135	-0	-9	-14	8	-24	-11	3.8	3.7	3.2
의약품	-1.0	-1.4	14.3	61	57	55	10	-3	-2	17	-14	-2	1.5	1.4	1.3
고무 및 플라스틱	4.7	-1.7	7.3	207	191	225	-15	-16	34	-6	-20	46	5.0	4.7	5.4
비금속광물	-3.3	-13.1	3.8	112	105	108	3	-7	3	-5	-5	7	2.7	2.6	2.6
1차금속	8.3	-2.6	-1.2	134	135	161	8	1	26	8	13	22	3.3	3.4	3.8
금속기공	11.7	5.5	2.0	342	301	322	14	-41	21	13	-37	6	8.3	7.5	7.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등	12.4	0.5	3.2	481	479	477	-9	-2	-2	-29	4	12	11.7	11.9	11.4

〈부표 1〉의 계속

	생산			고용			고용증감(4월)			고용증감(5월)			고용비중		
	'11.4	'12.4	'13.4	'11.4	'12.4	'13.4	'11.4	'12.4	'13.4	'11.5	'12.5	'13.5	'11.4	'12.4	'13.4
	의료정밀광학	2.3	16.2	15.9	105	100	112	16	-5	12	11	-1	-0	2.6	2.5
전기장비	-5.7	-0.8	-2.9	207	217	241	19	11	24	16	9	19	5.0	5.4	5.8
기계장비	10.4	-3.2	-3.9	387	399	423	-2	12	24	18	-4	27	9.4	9.9	10.1
자동차 및 트레일러	8.5	4.5	-1.2	412	406	458	37	-5	52	20	8	31	10.0	10.1	10.9
기타운송장비	20.1	-4.6	9.6	198	195	193	15	-3	-2	20	-4	-4	4.8	4.8	4.6
가구	-0.1	-9.0	-4.1	100	82	90	24	-18	9	17	-10	1	2.4	2.0	2.2
기타제품	2.6	-6.3	4.9	105	115	108	1	10	-7	-8	7	-5	2.6	2.9	2.6

주: 제조업 고용증가세를 각종 증분류로 보면, 경영 및 회계관련 사무직(31), 화학관련 기계조작직(83), 기계제조 및 관련된 기계조작직(85), 전기 및 전자관련 기계조작직(86), 제조관련 단순노무직(93)에서의 고용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40천 명, 21천 명, 27천 명, 36천 명, 31천 명 증가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부표 2〉 제조업 중분류별 고용증가폭이 큰 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업 (22)	221	타이어 및 튜브
	222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24)	241	제철업, 제강,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주철관 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2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3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28)	28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82	일차전지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4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5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9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부표 2〉의 계속

전기장비 제조업 (28)	291	내연기관제조업, 기타기관 및 터빈제조업, 유압기기제조업, 액체펌프제조업, 기체펌프 및 압축기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제조업,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제조업,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제조업, 산업용오븐, 노 및 노용버너제조업, 산업용트럭 및 적재기제조업, 승강기제조업, 컨베이어장치제조업, 기타물품취급장비제조업, 산업용냉장 및 냉동장비제조업, 공기조화장치제조업, 사무용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
	292	농업 및 임업용기계제조업, 전자용공작기계제조업, 금속절삭기계제조업, 금속주조 및 기타야금용기계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제조업, 산업용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제조업,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기계제조업, 주형 및 금형제조업, 그 외 기타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등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	301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303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부표 3〉 산업별 고용변동이 큰 직종 중분류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5	2012. 5	2013. 5
제조업	전 체	191	63	14	101	-67	105
	경영 및 회계관련 사무직(31)	50	28	7	34	-18	40
	화학관련 기계조작직(83)	9	-14	4	-18	5	21
	기계제조 및 관련기계조작직(85)	15	28	18	43	-9	27
	전기 및 전자관련 기계조작직(86)	25	15	31	1	59	36
	제조관련 단순노무직(93)	39	9	-41	32	-91	31
	섬유·의복 및 가죽관련 기능직(72)	-4	8	10	19	-10	-26
서비스업	전 체	200	386	416	260	531	187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25)	-28	-84	18	-109	55	-38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27)	36	46	-34	53	-24	-49
	경영 및 회계관련 사무직(31)	68	156	80	137	99	10
	매장 판매직(52)	-75	-46	59	-67	62	29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24)	63	104	87	134	77	12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6. 지역별 고용상황

◎ 고용률 등 취업활동은 지역별 편차가 있음

- 광역시도의 2013년 5월 고용률을 보면, 제주도(67.0%), 충청남도(65.3%), 경상북도(64.3%)가 높고 부산(56.4%), 광주(57.3%), 대구(57.7%)가 낮게 나타남
-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는 경기도(6,003천 명), 서울(5,114천 명), 부산(1,662천 명) 순으로 많고, 제주도(308천 명), 울산(555천 명), 광주(711천 명)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은 대체로 광역시 지역이 도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7〉 지역별 고용지표(2013년 5월 기준)

	고용률(%)	취업자 수(천 명)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전 체	60.4	25,398	62.3	3.0
서울특별시	59.9	5,114	62.6	4.3
부산광역시	56.4	1,662	58.5	3.5
대구광역시	57.7	1,196	59.5	2.9
인천광역시	61.7	1,454	64.1	3.8
광주광역시	57.3	711	59.1	3.0
대전광역시	58.7	748	60.8	3.5
울산광역시	59.9	555	60.6	1.2
경기도	60.3	6,003	62.2	3.1
강원도	59.3	739	60.6	2.2
충청북도	61.6	799	62.6	1.6
충청남도	65.3	1,180	67.3	2.9
전라북도	60.5	911	61.4	1.5
전라남도	63.1	935	64.4	2.2
경상북도	64.3	1,441	65.6	2.1
경상남도	60.8	1,642	62.0	2.0
제주도	67.0	308	68.1	1.5

자료 : 통계청, KOSIS(경제활동인구조사).